“다른 느낌인 이유는 체형 때문이겠지.”

“여기 아이돌은 어른이고, 키도 큰 편인데 넌 아직 고등학생이잖아.”

“그거야 그렇죠.”

채아람은 불만인지 입을 뾰로통하게 내밀었다.

“하지만 체형이 다르긴 해도 몇 cm 차이잖아요. 자세히 안 보면 모를 것 같은데요?”

“그래도 춤은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. 체형 차이가 더 드러나는 것 같아.”

채아람이 알기 쉽게 나는 영상에 나오는 아이돌을 예시로 짚었다.

먼저 여기. 손을 좌우로 움직이는 장면.

“팔이 기니까, 옆으로 더 멀리 내미는 것 같고.”

다음으로 빠르게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가는 장면.

“움직이는 것뿐인데 다가온다는 게 훨씬 잘 느껴지잖아. 그리고 무엇보다….”

아이돌이 격하게 몸을 움직이는 장면에서 말을 멈췄다.

...크흠.

“그리고요?”

“...그게 다야.”

“선배 뭔가 더 말하려고 했잖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뭔데요?”

“......”

차마 말할 수가 없다.

...무엇보다 그 부분 크기가 다르다고.

일부러 노린 건지, 아이돌이 춤출 때마다 상체의 그 부분이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린다.

하도 출렁거려서 계속 보고 있으면 뱃멀미라도 날 정도로.

“빨리 말해주세요! 뭔데요?”

“...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 에너지도 커지거든?”

“저 아이돌이 너보다 크니까 그만큼 춤의 에너지도 더 느껴진다는 말이야.”

“춤의 에너지…!! 그러게요, 선배 말이 맞는 것 같아요!”

다행이다.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돌려 말했는데 어떻게든 알아들었구나.

“그런데 선배. 그건 어떻게 못 하잖아요.”

“갑자기 키울 수도 없고. 거기에 너무 넣으면 춤추기 힘들단 말이에요.”

“그, 그렇지….”

채아람은 털털하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내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.

나, 나만 부끄러운 건가? 왜 부끄러움은 내 몫인 거지?

안 되겠다…!! 빨리 이 주제를 끝내고 도망쳐야겠어!

“너,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?”

“왜요? 많이 넣은 편이 커 보이잖아요.”

“주, 중요한 건 자신감이니까! 응. 조금만 넣어도 자신감만 있으면 커 보일 거야!”

“그렇지만 선배. 그게 자신감으로 해결될까요?”

“돼! 무조건 돼! 원래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고 하잖아? 걱정 안 해도 돼!”

그러니까 채아람 제발 이 얘기 좀 끝내줘.

내 간절한 바람이 닿았는지, 채아람이 빙그레 웃었다.

“선배가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말하는데. 그러면 한 번 믿어볼게요!”

“그래. 그럼 이제 문제없지…?”

“네. 다음엔 선배 말대로 깔창 작은 거 넣고, 연습해봐야겠다.”

뭐?

“...깔창?”

“네. 굽 높은 신발보단 깔창이 춤추기 편하거든요.”

아. 설마 채아람.

내가 한 말을 진짜 몸 크기로 알아들은 거야…?

“...선배. 아까부터 키 얘기하던 거 아니었어요?”

“맞지. 키 얘기 맞아.”

“근데 왜 이상한 표정 지어요?”

“잠깐 딴생각 좀 했어.”

다행이다…! 진짜 다행이다…! 하마터면 대참사가 일어날 뻔했어!

속으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, 채아람이 가볍게 웃었다.

“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이란 얘기를 선배한테 들을 줄은 몰랐어요.”

“그, 그게 왜?”

“선배.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?”

채아람이 내 코앞으로 다가와 양어깨를 붙잡았다.

“선배 봐봐요. 지금도 자신감 없는 것처럼 어깨도 안 펴고, 허리도 약간 구부정하잖아요.”

“난 이 자세가 편해서 그래.”

“그럼 주눅이 든 것처럼 보인다구요. 자, 어깨 활짝 펴 보세요! 허리도 쭈욱!”

“이, 이렇게?”

“네! 훨씬 보기 좋아요. 앞으론 그렇게 다녀보세요. 알겠죠?”

채아람은 자세가 바뀐 거에 흡족했는지 내 어깨를 놓았다.

“히히. 그럼 저 가볼게요, 선배.”

“그래. 있다가 보자.”

“아! 그 전에 하나 더.”

채아람이 다시 다가와 손가락으로 내 양보를 꾹 눌렀다.

“누구나 웃는 얼굴이 더 멋있어 보여요. 알겠죠?”

이상하게 웃는 얼굴로 만들곤 채아람은 만족한 얼굴로 떠나갔다.